

뇌(腦) 사랑

사람이 TV를 만들었는데 화면이 안 나오면 무용지물이다.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생각>이 고장나면 지체가 고장난 것과 같고, 생각이 정상이 아니면 지체가 제대로 있어도 제대로 움직이며 사용할 수 없다. 생각이 고장 나서 기능을 상실하면, 큰일은커녕 작은 일도 못하고 만사가 실패하고 만다.

이는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을 창조하면서 육신의 핵인 <뇌>를 창조하셨는데, 이 뇌에서 <생각>을 하게 하였고 그 생각으로 자기 육신을 움직이게 하셨기 때문이다.

+ 생각이 성공을 좌우한다

사람은 <생각>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한다. 때마다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하기 싫은 생각이 있다. 해야 할 일인데 하기 싫은 생각이 들면 실패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 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실패한다.

해야 할 일인데 하기싫은 생각이 드는 이유는

첫째, 생각에서 필요성을 못 느끼니 의욕이 없기 때문이고,

둘째, 가만히 있으면 육신이 편하기 때문이다.

○ 생각이 신이 되어라

+ 사람의 핵은 생각이다.

<잠 4:23>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니 형상의 핵은 육신이다. 이 육신이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니 사람 근본의 핵은 <생각>이다. 따라서 <생

각>을 정말 잘해야 된다.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에 따라서 <육의 삶>이 좌우되고, 그 <육의 행실>에 따라서 <영혼>이 만들어지고 변화되어 <영혼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육계와 영계의 핵 원자탄>은 생각이다.

+ 하나님이 사람과 통하는 세 가지 방법

육신은 육으로 통하고, 혼은 혼으로 통하고, 영은 영으로 통한다. <육신>은 영과 직접 못 통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육신인 인간과 통할 때는 이같이 하신다.

- ① <만물>도 육과 같은 물질이니, 하나님은 만물을 보여 주시며 계시하신다.
- ② <사람 중에서 합당한 자의 육신>을 쓰고, 그를 통해 나타나 역사하신다.
- ③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을 주면서, 그 생각을 통해 인생들과 통하신다.

+ 생각만 다스려도 사탄을 이긴다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짓고 화를 받고 의를 행하여 복을 받는다. <생각>만 절대 완전하게 하고, <자기 생각>을 삼위일체와 주의 생각으로 무장하여 누구에게도 틈을 주지 않으면, 사탄 수백만이 몰려와도 손대지 않고 다 이긴다. 생각을 강하게 하고, 절대 요동하거나 꺾이지 말고, 끝까지 따라오면 구원자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구원도 해 주고 휴거도 시킬 수 있다.

+ 생각에서 물리쳐라

스스로 <생각>이 신이 되어 다 다스려야 된다. 강력한 시대 말씀과

삼위의 생각과 주와 일체 된 생각으로 사탄과 악을 물리치고, 비진리를 물리치고, 온전치 않은 말들을 물리치고, 자기 육적인 생각을 물리치고, 세상과 이성으로 흐르는 생각을 물리치고, 못 하겠다는 생각을 물리쳐야 된다. 사람은 <생각>으로 죄를 짓고 이성에도 빠진다. <생각>으로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불신하기도 한다. <생각>을 온전히 해서 말씀을 믿고 행하여 자기 영을 변화시켜 휴거를 이룸으로 천국을 차지하기도 하고, 반대로 <생각>에서 시대 말씀을 불신하여 자기 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하기도 한다. <생각>이 그리도 크다.

+ 생각은 자유의지이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은 자기 자유의지라서 믿느냐, 안 믿느냐도 자유의지이다. 하지만,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 행한 모든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진리가 맞는데 자기가 안 믿으면 자기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망으로 가면 되고, 자기가 믿고 따르면 그에 대한 책임과 대가로 생명권, 천국으로 가면 된다. 하나님도 <인간의 생각>을 무력으로 100% 주관하지 않으신다.

양심을 주어 깨닫게 하고, 만물을 보이며 깨닫게 하고, 구원자를 보내 시대 말씀을 주어 깨닫게 한 후에, 사람이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사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하면서 자기 책임 분담을 하는지 보신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하면서 자기 책임 분담을 하는 자만 하나님이 그 <생각>을 100% 주관하여 지키시고, 그 육신을 자기 몸으로 쓰면서 역사를 이루신다.

○ 사랑을 제대로 알아라!

+ 사랑이란 ??

사람들은 <사랑> 하면, 육체관계로 인한 흥분과 기쁨만 생각하며, 육체관계가 없으면 사랑의 핵이 무엇이냐고 한다. 하지만, 육체적 관계가 <사랑의 핵>이고, <사랑의 본질>이고, <사랑의 생명>이라면 육체적 관계가 불가능한 나이든 사람들과, 아기들과, 어린아이들과, 성적인 것을 모르고 깨끗이 사는 자들과, 성자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은 <사랑의 핵>과 <사랑의 본질>과 <사랑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된다.

+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뇌 사랑, 정신 사랑, 생각 사랑

뇌 사랑, 정신 사랑은 육신이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라도 생각에 따라서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육신이 나이 들어 늙어도 생각에 따라서 무한대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그 사랑의 기쁨을 육으로만 따져도 육이 살아 있는 기간인 100년 동안 느끼고 간다. 그러나 육체적 사랑은 기간도, 시간도, 기쁨의 강도도, 사랑의 강도도 극히 한정되어 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육적사랑이나 하체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을 절대 믿고 지켜 행하는 것이며, 그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을 해 드리는 것이다.**

+ 근본적 최고의 사랑은 뇌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육체관계의 사랑이 아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육체관계는 없다. 그래도 하늘까지 닿는 사랑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그 사랑으로 인해 수백, 수천 가지의 기쁨이 온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의 사랑도 이와 같지만, 육체적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근본적 최고의 사랑이다. 육적 사랑의 지체가 근본이 아니다.

사람은 기쁨과 흥분을 모두 뇌에서 느끼는데, 하나님은 뇌신경에 자극을 주어 사랑을 느끼며 기뻐하며 살게 하신다. 사랑의 본체는 뇌다. 육체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육체적 사랑은 뇌사랑에 비해 기쁨이 매우 적고, 사랑의 강도도 매우 연약하다. 그러나 <사랑의 본체>인 뇌는 그 기쁨이 무한하고, 그 강도가 엄청나게 강하다.

+ 진정한 사랑을 몰라 참으로 불쌍한 사람아!

어떤 사람은 시대 사명자가 성자와 함께 오랫동안 키웠는데, “남녀가 사랑 관계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요? 결혼하고 싶어요.” 했다. 그러더니 그 사고대로 육체 사랑에 빠져 살다가 신앙을 저버렸다. 그 사람은 결혼하여 매일 지옥 사랑을 하다가 결국 헤어지고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주만 위해 살겠다고 했다. 이에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제 길 다 가다가 돌아왔으니 이제 해가 지고 있다. 구원을 받기에도, 휴거를 이루기에도 너무도 시간이 없구나.” 하셨다.

+ 이성죄는 휴거를 짓뭇개는 격이다

<이성 죄>는 죄지은 것의 100배 형벌을 받고 올라와야 복직된다. <이성 죄>를 지으면, 자기가 휴거를 짓뭇개는 격이다. <휴거>는 <사랑>으로 된다. 이는 사랑이 날개가 되어 날아오른다는 말이다. 그런데 타락하여 사랑의 날개가 부러졌으니, 날아지겠느냐.

○ 너는 어떠하냐?

+ 자기 중심을 확인해라.

자기 영혼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자기 육의 행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만일 자기 육신이 육적인 것과 성적인 것만 추구하며 거기에 빠져 살면, 영은 사망에 거해서 결국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된다. <자기의 중심>이 어디로 쏠려 있는지 확인해 보아라. 육적인 것, 성적인 것에 쏠려서 살고 있는지, 영적인 것을 중시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라. 구원과 휴거가 먼저인지 공부, 명예, 물질이 먼저인지 생각해 보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사랑이 먼저인지 성적인 것에 쏠려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라. 자기가 무엇에 쏠려서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이것 하나만 봐도 자기 뇌, 육, 영의 상태를 알 수 있다.

+ 너는 무엇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고 있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것, 성적인 것을 추구하며, 잘 먹고 잘 입는 것만 빠져 산다. 그러면서 영은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있으니 결국 영이 사망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의 핵심이다. <사랑>은 모든 것의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만일, 사랑을 모르겠으면, 자기가 지금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어떤 사람은 공부를 최우선으로 두고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돈과 물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이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를 최우선으로 두고 살고 있다.

+ 말이 아닌 행실로 살아라!

자기 육신이 어떤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느냐에 따라 영혼의 형

체가 결정되고 영혼의 운명이 좌우된다. 사람은 그 무엇보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거기에 쏠려서 살아간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최고로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쏠리게 되어 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최고로 사랑해야 <자기 시간, 자기 열정, 자기 사랑>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게 쏟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최고로 사랑하는데도 <자기 시간과 열정과 사랑>을 다른 데 쏟는 사람들이 있다. 성자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다. 행실 없이 말만 많은 사람이다.” 하셨다. 사람이 말로만 살아간다면, 말만 잘하면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이상에 맞는 행실로 얻고 누리며 살아간다.

+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 22:37~38>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의 사랑은 <뇌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지상천국도 이룬다. 또한 영을 휴거시켜 천국에 가게 하여 천상천국도 이룬다.

<사 56:7>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게 함으로 뇌를 기쁘게 하여 육도 마음도 혼도 영도 기쁘게 하신다. <뇌 사랑>을 하면, 마치 남녀가 사랑하는 것과 같은 기쁨

을 느낀다. 그러나 그 사랑은 육체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극치의 기쁨이다. <정신적 사랑, 뇌 사랑>도 하나의 육체적 사랑과 같은 격이다. 그러나 <뇌 사랑>은 육체 사랑의 수준을 뛰어넘어 훨씬 더 극치의 차원으로 느끼게 되고, 극치의 보람이 있다.

+ 뇌 사랑으로 남길 것을 남겨라!

성(性)이 아무리 발달돼도 세상에 남는 것이 없다. 하면 할수록 육적으로 빠지고 취할 뿐이다. 가면 갈수록 타락되어 곤고함에 빠질 뿐이다. <육체관계>는 생명이 탄생하고 번성하는 역할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뇌>는 다르다. <뇌>를 발달시키면 수십만 가지, 수십억 가지가 남는다. 예술, 문화, 건물, 환경, 먹고 사는 것이 남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해서 <뇌>를 발달시키면 위대한 예술 문화가 남게 된다. 또한 <뇌>를 발달시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 구원, 휴거, 천국, 황금성이 남는다.

+ 축복은 생각에 주신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은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휴거되기 원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를 사랑하기 원하고, 황금성에 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얻는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에 축복을 주신다. 옳은 생각, 온전한 생각, 하나님적 영적 생각을 하는 자는 축복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온전한 생각을 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절대적으로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자기 <뇌>에 시대 구원자를 통한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 가득 채우고 그 뜻대로 사는 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뜻을 이루며 사

는 자는 <정말 축복받은 자>다.

○ 하나님을 사랑하라!

+ 휴거 때 뇌와 몸을 깨끗이 하라

말씀을 듣고 알기는 아는데 아직도 <뇌 사랑>을 못 하는 자는 더 큰 것에 눈뜨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성의 죄, 성적 죄나 회개하면서 고생하며 산다. 이성애 빠져 살다가 후에 깨닫고 다시 와서 하려면 시간이 없다. 미리 알고 정해진 한 길을 가야 된다. <휴거>는 뇌와 몸을 깨끗이 하여 온전한 사랑을 해야 이룰 수 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때가 바로 <휴거 때>다. 이때 위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자기 뇌와 몸을 최고로 깨끗이 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뜻대로 최고로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 최고의 사랑으로 최고로 얻으라!

아직도 육적으로 사랑을 쓰며 지옥의 땅을 침노하는 자들이 있으니, 참으로 미련한 자다. 어서 회개하고 천국의 땅을 침노해야 된다. <하체 사랑>에 빠지면, 뇌가 하체로 발달해서 뇌 기능이 육적으로 낮아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진다. 또한 물질, 명예, 세상 학문 등 <육적인 것>만 사랑하며 살면, 역시 영적인 사랑이 약해진다. <사랑의 지능>이 낮으니, 하체 사랑, 육적인 것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육적으로만 행하다가는 인생을 실패한다. <사랑의 지능>이 높으면, 뇌로 사랑하게 되어 뇌로 수십억 가지를 발달시켜서 얻는다. 그중에서 최고로 지능이 높은 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여 영원한 것을 얻는다.

사랑의 근본, 사랑의 핵심, 사랑의 위력, 사랑의 웅장함, 사랑의 신비함은 <뇌 사랑>이다. <뇌 사랑>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육 속에 뇌도 들어 있다. 최고의 사랑인 <뇌 사랑>을 쓰는 자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 최고로 얻게 된다.

★ 참고

● 심화 : 참고말씀

- ☞ 2014-09-28 사랑의 핵심, 사랑의 본질은 뇌사랑이다
- ☞ 2014-10-01 사랑의 본질은 뇌사랑이다
- ☞ 2015-07-26 매일 생각을 온전히 하고, 사탄과 악을 대적하라
- ☞ 2015-08-02 말의 능력을 받아라 / 생각에 대해 깨달아라 생각은 신(神)이다
- ☞ 2015-08-12 생각에서 성공한다
- ☞ 2017-11-05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 심화 : 하늘과의 사랑

- ☞ 새벽기도는 하나님과 극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다. 또한, 말씀을 듣는 것, 깊은 깨달음을 얻는 것, 큰 감동을 받는 것도 사랑을 하는 것이다.